

## 진도군에 '일제 부역' 역대 읍면장 사진 버젓이 걸려 '논란'

“조선총독부 임명한 면장 게시는 역사 의식 부족”

진도읍사무소 “아픈 역사도 역사, 철거 계획 없다”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이한 가운데 전남 진도군 읍·면사무소에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임명한 전임 읍면장들 사진이 아직도 게시돼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15일 진도 주민들에 따르면 진도읍사무소 2층 회의실 벽면에는 그동안 진도읍·면장을 역임했던 분들의 사진이 걸려 있다.  
김영기 초대 면장(1910.6.22~1921.6.23)부터 1979년 5월 1일 진도면이 진도읍으로 승격되기 전까지 16명의 면장사진이 순서대로 게시돼 있다.

특히 10대 면장은 이름도 창씨 개명된 '복도 이 방(福島二郎)'(1944.3.31~1946.2.10) 이란 이름으로 기재돼 있다.  
이후 진도읍 승격부터는 현재까지 16명의 읍장들 얼굴 사진이 면장들 아랫줄에 연이어 배치됐다.  
진도읍사무소 뿐만 아니라 진도지역 면사무소 여러 곳에도 일제시대 임명된 면장들 사진이 여전히 게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총독부는 1910년 행정체계를 개편하고 '조선총독부 지방관 관제'를 공포한 뒤 도, 군, 면 체계를 추진했다.

이에 맞춰 군수와 면장 등을 임명해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및 징병, 강제 공출 등 수탈의 첨병 역할을 맡았다.  
주민들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국권침탈로 조선총독부가 임명한 면장들 사진을 철거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주민 박모씨는 “무조건 친일파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일제 강점기 당시 면장들이 일제에 부여한 것은 분명한 역사적 진실”이라며 “일제강점기 각종 수탈의 첨병 역할을 맡은 행정 책임자들을 일선 행정기관에 게시하고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조선총독부를 우리 정부의 역사로 인정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최모씨는 “조선총독부 관리들의 사진을 일괄적으로 걸어 놓는 것은 그릇된 역사 인식의 발로이며 역사를 기록하는 것과 기념하는 것은 다르



진도군 읍사무소 회의실에 걸려 있는 일제강점기 시절 역대 면장들 사진

른 문제”라며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35년 동안 당시 조선총독부로부터 임명받은 면장의 사진은 역사 바로세우기 차원에서라도 즉각 철거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진도읍측은 이런 논란에도 조선 총독부가 임명한 면장들 사진에 대한 철거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진도읍 관계자는 “일제 강점기 면장 사진을 철거해야 한다는 지적은 있

으나, 이분들이 면장을 지낸 건 사실”이라며 “아픈 과거도 역사이듯, 역대 면장들의 행적을 반면교사로 삼으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진도=조성용 기자

### 주승용 의원 “전라선 KTX 주말 4회 증편 운행”

9월 20일부터 용산~여수 늘려

주승용 국회의원(여수)은 13일 “여수 관광객 급증으로 오는 9월 20일부터 전라선 KTX가 주말에만 4회 증편 운행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코레일은 8월 20일부터 예매를 시작해 9월 20일에 첫 증편 운

행하기로 했다”며 “금·토요일 용산에서 오후 8시 35분, 토·일요일 행신에서 오후 12시 10분, 여수에서는 토·일요일 오전 8시 2분과 오후 7시 32분에 운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라선 용산-여수간 KTX는 2011년 10월 개통초기 주말기준 1일 10회에서 2019년 7월 현재 28회



로 증편됐으며, 9월부터 주말 32회로 추가 증편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어 “2019년 일평균 이용객은 1만 791.9명으로 2016년 1만 626명보다 72.93%(68.6%)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용산-여수간 전라선 KTX 주말 증편은 환영하지만, 여전히 수서발 전라선 고속철도가 운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여수에서 서울 강남지역으로 이동하는 지역민들과 강남에서 여수를 방문하려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 완도산 해조류, 대만 첫 수출 쾌거

완도담양어조합법인, 세모가사리 및 건 다시마 등 수출

전남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사업 마케팅 지원의 일환으로 대만 가오슝 수출상담회(2018년 11월 21~22일)에 참가하였던 수해 기업 완도담양어조합법인(대표 이수화)이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센터장 임영태)와 가오슝 K-FISH가 연계 협력을 통해 지난 8일, 완도산 해조류 제품을 대만에 수출 선적하는 쾌거를 이뤘다.  
완도담양어조합법인과 계약한 대만의 신초실업유한회사(유통회사)는 한국, 일본 식품을 대만으로 수입하는 회사로 마른 김, 다시마를 주로 수입하고 있다.  
선적식에는 이수화 대표 및 임영태 센터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완도농공단지에서 위치한 완도담양어조합법인 공장에서 세모가사리, 건 다시마 등

완도산 해조류 제품 6만 벌 어치를 선적했다.  
특히 세모가사리는 청정 해역에서만 자생할 수 있는 해조류로 우리나라 남해·서해 파도에 의해 포자가 갯바위에 부착해 자라는 것이 특징이다.  
청정 지역에서만 자라는 이유 때문인지 ‘바다의 귀한 약초’로도 불리며 대만에 수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영태 해양바이오연구센터장은 “전남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사업 수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입을 위해 전라남도 및 완도군과 해양바이오연구센터가 많은 지원과 노력을 한 결과 좋은 결실을 맺게 됐다”며 “앞으로도 신규 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 광양매화축제, 대한민국 빅데이터 축제대상 수상

외지인 가장 많이 찾고 외지인 증가율 높아

광양시는 광양매화축제가 2019 대한민국 빅데이터 축제대상에서 ‘최고 인기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빅데이터 축제대상’은 고려대 빅데이터융합사업단, 매일경제, 세계축제협회(IFEA) 한국지부, BC카드, KT, 다음소프트가 공동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축제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상하는 국내 최초 빅데이터 축제어워드다.  
광양매화축제는 외지 방문객의 이동거리가 가장 길고 외지인 방문 증가

율이 현격히 상승한 축제로, 축제 발전에 가장 뛰어난 성과를 달성하며 대한민국 축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수상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도구인 ‘축제 절대평가 시스템’ 데이터에 기초한 1차 정량평가를 통과하고 전문가의 2차 정성평가를 통해 매력과 잠재력을 인정받은 값진 쾌거다.  
세계축제협회(IFEA) 한국지부 회장인 정경환 배재대 관광축제호텔대학원장은 “빅데이터를 축제 평가의 기본

골격으로 삼되 각 축제가 가진 콘텐츠와 마케팅 강점, 조직 전문성, IFEA 평가 지표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평가 분석을 했다”고 말했다.  
김명원 광양시 부시장은 “4차산업혁명의 키워드인 빅데이터로부터 광양매화축제의 우수성과 잠재력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광양매화축제의 정체성을 충분히 살리면서 차별화된 콘텐츠로 고품격 광양매화축제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축제대상에는 대한민국 100여 개 축제 중 경제지평선축제 ‘명품브랜드상’, 보령머드축제 ‘지식관리상’ 등 20개 축제만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남에서는 곡성세계장미축제 ‘신예인기상’, 전남전통문화축제 ‘소셜감성상’이 포함됐다.  
시상식은 2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의 KT올레스퀘어에서 열린다.  
광양매화축제는 축제기간 134만명, 3월 한 달 200여만명이 방문해 2018 트레블이어어워드에서 최우수 봄 축제, 2019년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선정되는 등 글로벌 명품 축제로 도약하고 있다.  
광양=김승호 기자

**명품향은 행복의조만**

**설렘화순 버스투어** 2019. 3. 23(토)~11. 24(일) 매주 수, 토, 일요일

**코스**  
동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화순적벽⇒임대정원림⇒연둔숲정미⇒김삿갓동산 ⇒오지호 기념관 및 생가⇒화순읍  
서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운주시⇒조광조유배지⇒고인돌유적지⇒화순적벽 ⇒화순읍

**예약**  
설렘화순 버스투어 홈페이지 <http://tour.hwasun.go.kr>  
**현지탐승**  
이서커뮤니티센터, 미 예약 방문객 현장 선착순(1대)

**임대정원림**

**연둔숲정미**

**김삿갓동산**

**오지호 기념관**

**조광조유배지**

**고인돌유적지**

**운주시**